

5. 마가복음 구조분석—전체 줄거리	
◆ 그냥 듣기, 읽기	
◆ 마가복음 전체줄거리 말하기—나름대로 이해	
I. 서론: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	1:1-15
A. 머리말(Prologue)	1:1-13
1. 제목: (하느님의 아들, 그리스도) 예수의 복음의 시작	1:1
2. 보충설명—as it is written	1:2-13
a. 구약 전통 계승: 세례 요한	1:2-8
b. 예수가 신령(神靈)을 받다	1:9-13
B. 주제: 하느님의 복음, 하느님의 나라	1:14-15
II. 본론: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	1:16-15:47
A. 갈릴리/지방/피지배지역—Hometown, rejection	1:16-10:52
1. 권세/제도와와의 대립/충돌	1:16-3:35
2. 담화: 비유적	4:1-34
3. 예수의 전도 여행: 경계선 없애기	4:35-10:52
a. 신학 다시하기	4:35-8:10
1) 갈릴리/이방인 전도: 풍랑, rejection, (Crossing the Sea)	4:35-6:44
· crossing the sea (Gerasenes—East Bank)	4:35-41
· 귀신 축출: 군대 귀신, 혈루증 여인, 야이로의 딸	5:1-43
· rejection from Hometown, 전도여행	6:1-29
· Bread and Fish (오병이어)=>잔치	6:30-44
2) 유대인/이방인 (Crossing the Boundaries—East Bank)	6:45-8:10
· crossing the sea (Bethsaida)	6:45-52
· 귀신 축출	6:53-56
· rejection from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from Jerusalem, 전도여행	7:1-37
· Bread and Fish=>잔치	8:1-10
b. 총정리: 설명—제자도	8:11-10:52
1) “하늘로부터 오는 표적”=> 예수의 복음 (지배체제의 언어, 기적=일확천금)	8:11-21
2) 보충설명	8:22-10:52
B. 예루살렘/도시/지배자 영역—rejection	11:1-15:47
1. 권세/제도와와의 대립/충돌	11:1-12:44
2. 담화: 종말론적	13:1-37
3. 예수의 수난과 죽음—전도여행의 결말, 제자들 도망	14:1-15:47
III. 결론: 예수 다시 살아내기	16:1-20
A. 첫 번째 이야기: 갈릴리로 가라	16:1-8
B. 두 번째 이야기: 안식 후 첫날	16:9-20
1. 증언과 제자들의 불신	16:9-14
2. 예수의 현현, 명령, 약속	16:15-20

참고서적

- M. Eugene Boring, *Mark: A Commentary* (New Testament Library; Louisville: Westminster John Knox, 2006), 1-6.
- R. T. France, *The Gospel of Mark* (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; Grand Rapids, Mich.: Eerdmans, 2002), 11-15.

문제점—생각할 점.

1. “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?” (8:17, 21)=> 썩듯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. 여기서 8:22-10:52 역할. 앞에 연결되나 혹은 뒤에 연결되는가?
 - 베드로의 고백, "You are the Christ" (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)는 별로 spot-light을 받지 못한다 (cf. 마 16:17-19). 막 8:30 => Messianic Secrecy?
 - 세 번에 걸친 예수의 고난과 죽음/부활 예언 (8:31; 9:31; 10:33-34)
2.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?(οὐπω ἔχετε πίστιν, 4:40) => "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"(ἔ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, 11:22)=> "하느님을 믿으라" (개역)???? Q. "하느님의 믿음"! 이렇게 읽으면 안돼나?
3. 막 6:51-52의 의미: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본 후 제자들이 "마음에 심히 놀라니,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."???? (ἐπὶ τοῖς ἄρτοις, 떡에 관하여).
 - "그 떡 떼시던 일"(개역), "빵의 기적"(표준 새번역); "빵을 먹이신 기적"(공동번역) => "the miracle of the loaves" (KJV); cf. "about the loaves (NKJV)
 - 기적과 놀람이 무슨 관계가 있나? (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니, 놀랄 일이 아닌 것을 보고 놀랐다는 뜻인가?)
4. 두 개의 긴 담화 (4:1-34; 13:1-37)=> 4장은 군중들 앞에서; 13장은 제자들만 모아 놓고. 성격상, 비유와 묵시. 둘 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 (4:11).
5. 예루살렘의 의미. 처음부터 등장 (1:5; 3:8), “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”(3:22); “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”(7:1).=>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었다. 왜?
 - 죽음 때문에? (누가복음, yes! 9:51; 13:33)=>죽으러 간다. 그러나,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=>이미 사형선고(ἀπόλλυμι, 3:6 =>11:18); (신성모독죄=> 2:7; 14:64)
 - 지역적이거나 보다 상징적. 지방 vs. 수도; 피지배체제 vs. 지배체제 (재판과 형벌)

마가복음은 이야기체로* 서술=> 서론, 본론, 결론의 형식

- ◆ 서론은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밝힌다. 예수의 복음, 곧 하느님의 복음이며 이를 믿게/실천하게/살아내게 하려는 목적이다.
- ◆ 본론은 서론에서 밝힌 것을 논증하는 형식으로 일련의 사건을 등장인물을 통해 나타낸다. 여기서는 물론 어떤 줄거리(Plot)에 맞추어 전개. 그 주된 줄거리는 하느님 나라/복음에 대항하는 이 세상의 지배세력/복음/신학이다. 마가복음에서는 지배세력, 군중, 친족, 제자들이 모두 하느님의 나라/복음을 거부하거나(지배세력) 깨닫지 못함(제자들).
- ◆ 결론은 주제를 다시 밝히며, 행동을 격려. 갈릴리로 가서 하느님의 복음/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라. (*결국, 독자/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)
- ◆ 초점은 본론 이야기이며, 그 줄거리 곧 플롯을 찾는 것.
 - 다시 읽고, 교훈을 얻는다=>"갈릴리로 가라"(14:28; 16:7)의 의미. 갈릴리는 지역이 아닌 상징적 의미 (예루살렘과 비교).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(다시 읽어 보면) 깨닫게 된다. 지배체제의 영(더러운 영)을 따라 살지 않고, 예수의 영(성령)을 따라 산다. 실천한다.
 - 여전히 남는 질문. "그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" (막 16:8) => 너도 두렵냐? (막 16:9 이후는 이에 대한 응답=> 성서 다시 쓰기)

* 이야기체 (oral literature)=> 현장감, 박진감을 높임

- "즉시로" (εὐθύς, immediately): 41번 (마태 5번; 누가 1번; 요한 3번)
- "...하기 시작했다" (ἤρξατο/ἤρξαντο, began to...): 26번
- "또 다시" (πάλιν, again): 28번(마태 17번; 누가 3번; 요한 45번)
- 소위 "historical present tense": 최소 150번 (France, *The Gospel of Mark*, p. 17).

어떻게 읽을까?

1. 앞의 질문. 8:22-10:52의 역할. 1. literary inclusion (8:22-26; 10:46-52; 1) 3개의 예언(Triple Prediction)이 비슷한 구조로 형성: 말씀(8:31; 9:30-31; 10:33-34), 오해(8:32; 9:32; 10:35-37), 가르침(8:34-9:1; 9:33-37; 10:38-45). 문제는 이것이 앞 단락에 혹은 뒤에 연결되는가.
2.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“예루살렘”의 역할. 이미 밝힌 대로, 예루살렘은 앞에도 등장 (1:5; 3:7; 10:32-33). 11장에 이르러서는 1, 11, 15, 27절; 그 후에는 15:41에 한 번 등장. 즉, 11장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뜻이 밝히 드러남.
3. 11장에서 예수가 행한 일들은 살펴면,

	갈릴리/지방 전도(1:16-10:52)	예루살렘/수도 입성(11:1-15:47)
처음 사건	제자 부름(1:16-20)	두 제자 보냄, 군중 (11:1-10)
권세와 대립/ 충돌	공회에서 (1:21-28) 무슨 권세=>1:21-28	성전에서 (11:11-33) 무슨 권세=> 11: 27-33
지도자들과 분쟁	서기관 등 (2:1-3:6)	12:1-34
서기관	예루살렘에서 올라 오(3:22; 7:1)	예루살렘에 주둔 (12:35-44)
주요 설교	씨뿌리는 비유 (4:1-34)	마지막 때 (13:1-37)
반응	제자—깨닫지 못함 (8:17, 21) No faith (4:40)	제자—예수를 부인, 도망 (14:50) cf. 14:62 No Faith => "have faith of God" (11:22)
	이방인, 소외된 자—예수를 따름 (10:52)	여자/이방인—예수를 따름 (15:39-41)

4. 핵심부분인 4-10장의 분석. 크게 지배세력과 대립, 예수의 담화, 그리고 행적으로 구분.
 - 예수의 행적은 한 마디로=> “경계선 없애기”, 곧 정치/종교적 제국주의 타파=> 더불어 사는 삶
 - 특징으로는, 갈릴리 호수/바다를 건너는 행동을 통해 (4:35-41; 6:45-52; 8:10, 13)
 -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서로 비슷한 일련의 사건 기록: 귀신 축출, 거부(6:1-6; 7:1-13), 잔치. 경계선을 없이 함의 결과로 더불어 사는 삶 (잔치) 그림
 - 자세히 살펴면, 경계선 서쪽은 유대인 지경; 오른쪽은 이방 지경. 갈릴리(유대문화). 회당 중심(1-3장), 가버나움이 중심; 바다 건너편(이방문화). 무덤
 - 멀리서부터 ἀπὸ μακρόθεν (5:6; 8:3) => 지역적으로 뿐 아니라, (일상의) 관계 속에서 분리/경계 타파
 - 8:11-21은 summary 역할.
 - 1) 한편으로는 사람들/지배체제의 깨닫지 못함. 그들은 이미 앞에서 큰 이적 (feeding)을 경험. 단지 받아들이기를 거부. 우선, 바리새인의 질문—하늘로부터 오는 표적—은 앞의 이야기 전개와 확연히 구분. 예수의 표적은 이미 처음부터 귀신축출/가르침—더러운 영과 대립되는 성령—의 형식으로 주어짐.
 - 2) 그럼, 왜? 저자는 이것이 그들의 시험(πειράζοντες, tempting)이라고 단언! 그들이 구하는 "표적"은 일확천금. 곧 자신들의 standard/신학/이데올로기에 따른 "기적"=>남보다 뛰어난 (돈, 지위, 권력)
 - 3) 문장 구조상, 그들의 구하는 것(ζητοῦντες)=>시험(πειράζοντες) (시험, 8:11=> 1:13, 무슨 의미?)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고, 단지 “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” (12:13=>무슨 권위, 요한의 세례..)=>설명은 그들의 가르침 (누룩)을 주의하라.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에 대한 설명. (예수의 떡=>가르침) Cf. 마태복음 16:11 설명.
5. 8:22-10:52까지는 4장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의 신학을 깨닫지 못한고로 그에 대한 설명. 고로, 4-10장은 한 통속.
 - 깨닫지 못함 (8:17, 21) => blindness (8:22-26; 10:46-52)
 - 지배체제는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, 그 병(체제)을 치료받지 못함 (8:11-13—표적을 거부=> 지배체제의 병을 그 체제 자체로 고칠 수 없음, cf. 3:22-23; 그러나 (장래의) 제자들은 치료 가능=> 두 번의 눈 뜸 이야기.